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서향순(오른쪽)씨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한인교포 학생선수들이 지난 13일 광주 염주동 서향순 양궁장에서 표적지를 보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1984 LA올림픽 양궁 첫 금... '서향순 양궁장' 찾은 서향순

美서 후학양성... “양궁은 내 인생 최고 선물”

10년전 교포들 지도 부탁에 정착

스포츠 아카데미 개설 ‘제2의 삶’

2015 광주 U대회 양궁장

‘서향순·기보배’ 명예에 큰 영광

“시상대에 올랐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아 눈을 떴는데 정작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한 양궁경기 TV중계를 보다 보면 긴장하고 눈물이 납니다.”

1984년 LA올림픽 여자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77)씨가 오랜만에 고향인 광주를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남동방향으로 1시간 거리인 얼바인시에서 자신의 이니셜을 딴 ‘HSS 스포츠 아카데미’(www.hssport-sacademy.com)를 운영하고 있는 서씨는 양궁을 배우는 한인교포 자녀 6명을 이끌고 전지훈련차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했다. 중 2~고 1년생인 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방과 후 클럽활동으로 활을 쏘고 있다.

LA올림픽 당시 광주여고 3년에 재학중이던 17세의 서씨는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승 후 보로 힙히던 선배 김진호(현 한국체대 교수)를 제치고 감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욱이 우

리나라 올림픽 출전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여성선수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지난 13일 찾은 광주시 염주동 염주 실내체육관 뒤편 서향순 양궁장.

미국 한인교포 학생들이 이를 일정으로 광주체육중 남녀 양궁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열중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서씨는 사대 뒤편에서 활시위를 닦기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힘이 너무 들어가. 편안하게 좌” 등 학생선수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해줬다. 학생들의 활 경력은 7개월부터 5년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씨는 “호자 훈련하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묻는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다 보면 ‘이런 것이 양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전지훈련을 5년 전 오고, 올해 두 번째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동명여중 시절 양궁을 시작해 이화여대 3년인 1988년 일산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영어공부를 하려 LA에 갔다 놀라앉게 됐다. 이후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교포들이 찾아와 자녀들의 양궁지도를 부탁했다.

이를 계기로 서씨는 9년 전 ‘서향순 양궁클럽’을 개설했고, 지난해 1월에는 양궁 외에 태권도와 유도를 지도하는 ‘HSS스포츠 아카데미’를 열어 ‘제2의 양궁인생’을 살고 있다.

서씨는 “선수시절 국제대회에서 만난 미국 양궁선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 학생들은 한국과 달리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양궁을 즐긴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씨의 가르침을 받는 한 학생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을 다니면서 올림픽 무대를 꿈꾸고 있다.

7개월 전부터 활을 잡은 최유서(16·세이지힐고교 1년)는 “양궁은 연습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운동이다. 처음 배울 때는 하루 6시간씩 연습했다. 입문 4개월 만에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100명 중 15등을 차지했다”며 “양궁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 일행은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 최종삼 선수촌장과 양궁대표팀 장영술 총감독, 기보배 등 선수들의 환대를 받기도 했다.

서씨는 2015년 U대회 양궁장 이름을 ‘서향순·기보배 양궁장(가칭)’으로 명명키로 한 것에 대해 “큰 영광”이라며 “애들을 가르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양궁은 선택받은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가 이끄는 미국 얼바인 학생선수단은 오는 18~22일 경북 예천에서 열리는 ‘화랑기 제34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범외경기에 참가한 후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8월 17일(토)

▲광주금당산양궁장

8월 17일